

도,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 5조 이상

대상액 5조 3446억원 · 목표액 96.2% 5조 1415억원...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

전북도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정책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96.2%로 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 올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액은 5조 3,446억원이며, 목표액은 정부 목표 93.6%보다 2.6%포인트가 높은 96.2%인 5조 1,415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실효를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 최소화하는 한편,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재정을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예산·지출·사업·자금

부서가 긴밀히 연계,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집행 대상 80% 이상이 구조적으로 국비, 교부세 등 의존 수입으로 돼 있어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교부받느냐가 중요하므로 중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대상액 8조 8,635억원 중 5조

3,863억원의 집행률(60.8%)을 달성했다"면서 "이 가운데 도 본청은 4조 1,779억원 중 2조 7,373억원의 집행률(65.5%) 실적을 올려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단체'에 선정돼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공공 디자인' 부서 신설 추진

전북도가 '공공 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반에는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팀(부서)이 있다"면서 "(우리도)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팀 신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디자인 확산에 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공 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재생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또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입 시절부터 공공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실제 시장 시절 송 지사는 '가장 한 국적이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며 아트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을 점검, 조정했고, 무분별한 간판과 현수막 등을 정비하기도 했다. /뉴시스



카터센터 대표단 커티스 콜하스 수석개발자, 아웨이 리우 국장, 메간 마츠 선임 부국장 등 4명은 지난 15일 전북대를 방문해 이남호 총장과 지난 1년간의 지미카터 국제학부 운영을 돌아보고 추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전북대-카터센터 공동협력 사업 구체화 논의

저개발 국가 농업기술 지원 참여 · 공동 해외봉사 · 카터센터에 인턴 파견 등

세계 최초로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지미카터 국제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카터센터와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카터센터 대표단 커티스 콜하스(Curtis Kohlbas) 수석개발자, 아웨이 리우(Yawei Liu) 국장, 메간 마츠(Meagan Martz) 선임 부국장 등 4명은 지난 15일 전북대를 방문해 이남호 총장과 지난 1년간의 지미카터 국제학부 운영을 돌아보고 추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에 전북대와 카터센터는 공동 학술활동과 학생 교환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을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간다나 에콰도르 등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저개발 국가에 농업 기술 지원과 같은 카터센터의 활동들에 전북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

기로 했다.

우선 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허버드'라 불리는 에모리대학교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양 대학에서 공부하고, 카터센터와 에모리대학교 등에서 양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해외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 학생 2명을 매 학기 카터센터에 인턴으로 파견해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지미카터와 한반도 평화'라는 교양과목도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지 강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미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북대 도서관에 지미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1994년 평양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에서 구한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영어와 한국어로 단행본으로 동시에 출판하기로 했다. /고민형 기자

더불어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는 전북대는 이에 맞게 카터 대통령을 대학에 초청,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세계 지미카터 학회와 대규모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이번 교류의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카터센터 아웨이 리우(Yawei Liu) 국장은 "우리 카터센터와 대한민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양 기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남호 총장은 "카터센터와 다양한 협력이 우리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더욱 높이고, 우리 학생들이 모험심으로 커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민형 기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개최지 새만금 현지실사

전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전에 뛰어난 가운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사가 진행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세계 잼버리대회 후보지인 새만금지구에 대한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사가 이날부터 사흘간 새만금 현장에서 진행된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위원 2명은 새만금지구를 둘러보고,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과 대회 진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한편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된다. /뉴시스

'악취민원 해결' 익산시-시민 온도차

시 "저감 효과"... 주민들 "근본 해결 방안 없어 고통"

가축 사육시설 등의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시민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제1·2산업단지와 대규모 가축 사육 시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부송동과 팔봉동 지역에 위치한 제1·2산업단지 지난 2014년 1월 전 북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산업지역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5000여 마리를 풀어 악취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오산면 송하리 일원의 축산농장을 전원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과 왕궁특수지역으로 인한 악취는 오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익산시의 이 같은 청사진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지만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몇몇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지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수 1000에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희석배수 750이하로 규정돼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며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악취저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이 지역 사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악취배출기준이 오는 2018년 1월 26일부터 희석배수 500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밀폐화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시는 희석배수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단지역의 악취는 대부분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악취 방지 및 저감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도심지역 인근에서 시간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분노 냄새와 폐수처리시설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기압이 낮고 잔잔한 서풍이 불 때면 영등동·부송동 지역민들은 산단과 왕궁 등에서 날아든 악취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서부권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추진하고 있는 오산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수년째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지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왕궁환경개선사업과 오산면 전원마을을 조성사업 등으로 가축분뇨 발생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왕궁지역 협업 축사 매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업 축사매입 사업은 올해까지 62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7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될 경우 20%의 축사만 남게 됐다.

여기에 왕궁특수지역에서 사육 중인 8만1000여 마리의 돼지를 올해 1만5000마리 감축하고 내년에는 1만

전원마을을 입주예정자들과 서부권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전원마을을 조성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익산시가 이를 관망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익산시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저감효과는 미비하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 인구보건협회, '2016 국민참여 사진전' 개최

인구보건협회 전북지회는 16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국민참여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O,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은 이날부

터 20일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에서 진행된다.

사진전에는 지난 5월 한달 간 진행했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66점이 전시돼 있으며, 무료로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뉴시스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